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Jang-Heum Ok
(Hanshin University)

Abstract

The climate crisis threatens Earth's ecosystems and biodiversity.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e cause of the global crisis began with human greed. An educational alternative is needed to change the Christian worldview that causes gr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appl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o Christian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contents of the study to achieve the purpose were first the essence of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citizenship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Second, The model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established by defining its goals, content, methods, and directions within the context of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Third, the application plan of Christia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and proposed: environmental education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ethical education to restore the public role of the church, education to form God's character, education to realiz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education that promotes Christ's peace and Christ education that fosters consideration for multicultural individuals, and literacy education to prevent the negative impacts of digital media culture. Next, the plan to appl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o Christian education is, first, to reduce human greed and restore God's creation order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can overcome the climate crisis. Second, through ethics education to restore the church's public nature,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church's role for the church's moral empathy and publicity. Third, through the education that forms the God's character, it is necessary to form a mature character of faith in which personality and faith are harmonious and balanced. Fourth, schools, villages, and churches form a community through education that realizes a village education community so that the members of the village can obtain educational results. Fifth, through education that aims for the peace of the God Christians should be able to live as Christian democratic citizens who achieve peace in the kingdom of God. Sixth, through education that considers multicultural people, faith education that helps them overcome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hatred toward multicultural people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seek a life of coexistence. Seventh, through literacy education that prevents the harmful effects of digital media culture, personal ability to read and write in media should ultimately be improved to the ability to practice socially.

Key Words

Climate cris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thics education, Maul community education, Christian peace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Received June 4, 2023 Revised June 28, 2023 Accepted June 29, 2023

Author : Jang-Heum Ok,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okch1@hanmail.ne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기후 위기 시대에 기독교 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적용방안*

옥장흠**
(한신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기후 위기가 지구 생태계와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구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탐욕을 일으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교육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첫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모형을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안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줄이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도덕적 공감능력과 공공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 마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기독교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공존하는 삶을 모색하도록 돕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 일곱째,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의 읽고 쓰는 개인적 능력을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 주저어 〉

기후 위기, 민주 시민교육, 윤리교육, 마을 공동체 교육, 기독교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 2023년 6월 4일 접수, 2023년 6월 28일 심사완료, 2023년 6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3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2022. 6. 10.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okch1@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기후 위기가 지구 생태계와 생명체를 위협하고, 탄식과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폭한, 폭염, 태풍, 홍수, 산불, 질병과 같은 현상들이 지구와 인류를 향한 경고음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마음사회문화연구원·기독교환경교육센터, 2022, 12). 이러한 지구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교회와 기독교가 인간의 탐욕을 일으켜서 지나친 소비와 개발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파괴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탐욕을 일으키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최근의 실태 분석자료들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육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이분법적인 신앙을 조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가치에 맞는 타당한 논의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야 한다(윤형철, 2021, 94).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이나 인간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후 위기의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하고, 힘없는 지역의 타자들, 제3세계 국가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발전과 편리함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 없다(이은경, 2019, 147). 현재 우리들에게 닥쳐온 기후의 위기는 조금씩 변화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한 순간에 재앙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신익상, 2019, 79).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후정의포럼, 기독교환경교육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NGO 단체들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생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에 살아가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실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단체들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펼쳐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대안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기후 위기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직접 실천해 나가는 교육이 필요하다(백은미, 2019, 1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분석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분석하고,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모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본질

기후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민주시민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민주시민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시민이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리와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에 관한 신념이나 가치는 물론이고,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배한동, 2006, 28)으로. 편협한 이기심이나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서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선을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백은미, 2021, 496-497)이다. 또한 민주시민은 자신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의 자세를 잊지 않는 소통에 대한 지향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장은주, 2019, 107). 이러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특성은, 첫째, 민주시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둘째, 민주시민은 일상적인 고정 관념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무책임한 선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셋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배한동, 2006, 17-18). 따라서 민주시민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갖추고, 비판과 타협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불의에 맞설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의사결정에서 비폭력적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특성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정의를 분석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향한 ‘태도 및 가치’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근본적 도덕적 지향과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이 공유해야 할 도덕적 원리의 내면화 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장은주 외, 2020, 63).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은 첫째,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의 적응과 발전 및 그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이다. 둘째, 미래의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다. 셋째,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다. 넷째, 민주시민들이 삶과 관련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다. 다섯째,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범교과적인 노력이 필요한 교육이다. 여섯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등을 통한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특정한 국가의 시민과 세계 시민을 교육하는 개방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애국적 시민정신이 요청되지만, 세계 시민으로서 상호교류와 공존공영, 평화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배한동, 2006, 36-37).

〈표 1〉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Carr & Hartnett(1996)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의 우선적 목적은 미래 시민이 될 학생들이 사회의 민주적 삶에 참여하는 데에 최소로 필요한 숙의적 추리에 도움이 될 지식, 가치, 기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Carr, W. & Hartnett A., 1996, 192).
Olssen, Codd, O.neill(2015)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은 개방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 공정과 합리적 이해, 진리에 대한 존중과 비판적 판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이다(Olssen, M., Codd, J., & O.neill A. M., 2015: 425).
Wortham (2022)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이 또는 한국 내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어떤 사회의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그 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상(像)을 파악하는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Wortham, 2022, 10-29).
배한동(2006)	민주시민교육은 바람직한 인격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배한동, 2006, 31)
유영철(2010)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능력), 태도를 가리켜 민주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 민주 시민적 자질)이라 하며, 이를 함양하여 행동(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활동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유명철, 2010, 17).
장신근(2009)	민주사회 구성원들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장신근 2009, 113-114.)
장은주(2020)	민주주의 모델과 시민성 개념에 기초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부여하는 삶을 충분히 누리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장은주 외, 2020, 63).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

화 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성보(2014)는 정치사회화 인격교육, 도덕교육, 시민·공민교육, 비판적 사고 교육, 봉사학습 등 전통적 관점과 접목을 시도하고, 인권교육, 환경교육, 다문화교육, 지구촌교육, 평화교육, 정치교육 등으로 제시하였다(심성보, 2014, 188). 장은주(2020)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민주적 시민성’을 실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또 민주시민교육은 그 민주적 시민성의 섬화와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세계 시민교육’의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으로 마을자치, 자원봉사, 청소년교육, 성평등교육,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권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공존교육으로 분류하였다(장은주 외, 2020, 69).

그러므로 연구자는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은 기후위기의 환경교육, 윤리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자원봉사교육, 청소년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기독교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고, 더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과 시민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제자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하고, 시민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콜만(Coleman, 1989)은 제자직과 시민직은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시민직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결속으로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동료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공동의 책무를 담당함을 의미하는데, 이 결속은 기독교의 설교와 증거, 즉 사실상 교회 자체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교회의 진리를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Boys, 1999, 97-103)고 하였다.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정의를 분석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따라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나 자질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성의 가치와 규범을 함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사회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Coleman (1989)	제자직과 시민직을 통해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설명한다. 제자직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 행위, 가르침에 기초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늘의 상황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시민직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잠재적인 참여자이며 동시에 잠재적인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장신근, 2009, 114-115. 재인용).
백은미(2021)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은 예수가 직접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다(백은미, 2021, 504).
이은성(2019)	기독교 민주시민 교육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품도록 하는 공적신앙을 형성하는 교육이다”(이은성, 2019, 239).
장신근(2009)	기독교 시민교육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공적 영역과 삶에서 일어나는 제도, 체제, 법률 등을 개혁해 나아가야 하고, 교회의 시민교육은 독특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확신을 가진 충실한 제자로서 동시에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전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장신근, 2009, 146).
김난예(2011)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시민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며, 종교적 행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총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김난예, 2011, 385).
김영호(2022)	학습자들이 현대 삶의 다양한 공론장들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와 도덕을 갖추도록 민주적으로 훈련과 준비가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를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 (김영호, 2022, 115).

III.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모형

기후 위기 시대에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따라 신앙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모형을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교육목표란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의미한다. 장은주(2020)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장은주, 2020, 70-72). 첫째, 모든 시민의 기본권 실현이다. 둘째, 민주주의에 필요한 시민정신의 함양을 지향한다. 셋째, 민주주의를 살아 있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넷째, 민주주의 사회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장신근(2009)은 교회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공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양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적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장신근, 2009, 130). 결과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 시민성의 가치와 규범을 함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회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적 경험을 통한 기독교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민주 시민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주 시민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도덕적 공감능력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육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해 나가는 교육이다.

2.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어야 할 내용을 의미한다. 심성보(2014)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공동의 선이 무엇인가, 개인의 이해와 자기 발전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개인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와 전망을 가져야 하는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위해 목적 지향적이고 자발적인 준비를 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바탕이 되는 윤리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 정부와 제도, 역사와 헌법, 민족의 정체성, 입법체제와 법률, 인간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 민주적 원리와 과정, 공익적 이슈에 관해 적극적 시민 참여, 국제적

관점, 민주적 시민의 가치 등에 관심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시민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구성 요소로 해야 한다(심성보, 2014, 193-194). 따라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첫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다. 둘째,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도덕적 공감능력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 회복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구현을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를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능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해 나가는 교육을 위해 평화감수성, 비폭력 의사소통, 평화 상상력을 강화하여 평화적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왜곡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곱째,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시대에 미디어의 부정적인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교육 방법이란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접근방법은 학문적 훈련, 법교육, 비판적 사고, 시민참여 혹은 시민행위, 사회문제, 도덕성 발달, 가치명료화, 친사회적 행동, 지구촌 상호의존 등을 들고 있다(유명철, 2010, 21).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 형성을 위한 교육 방법, 감수성 훈련 교육 방법, 하나님의 인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성 교육 방법,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민주시민 형성을 위한 교육 방법

민주시민 형성을 위한 교육 방법은 교육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의식 교육 방법, 문제중심학습, 협동학습, 공동체 학습, 봉사학습, 의식화 교육 방법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토의식 교육방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방법으로 토의식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의법(discussion method)은 학습자 상호간의 의사교환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학습 방법이다. 토의법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남의 의견을 청취하는 집단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방법이다. 이 토의식 교육 방법은 학습자 개인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개방된 태도를 길러낼 수 있으며, 토의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토의식 교육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조규락 외, 2006, 263-268). ① 원탁토의법(round table discussion), ② 배심원 토의법(panel discussion), ③ 심포지엄(symposium), ④ 공개토의 (forum), ⑤ 세미나(seminar), ⑥ 대화식 토의 ⑦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2)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문제중심학습은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자중심의 학습 방법이다. 문제중심학습에서 문제란 단순한 질문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한다. 따라서 문제중심학습이란 사회생활에서 당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해 나가는 학습방법이다(변영계 외, 2007, 178).

(3) 협동학습(cooperation learning)

협동학습은 소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하는 구조화된 체계적인 학습방법이다, 즉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최적화의 학습을 위해 구조화된 교수 방법이다(전성연 외, 2007, 14-15).

(4) 공동체 학습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면서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극대화로 인해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가 심화되고 사회의 양극화가 극대화되면서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는 공동체라는 연대감을 형성하고 시민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공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견제하는 기능,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토론에 참여하여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박성희 외, 20

13, 141).

(5)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봉사학습은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배려적 관계를 지향한다. 인간의 상호 의존성, 나눔과 배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해 주어 타인을 자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한다. 봉사학습은 봉사 대상자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어 비판의식을 길러 가는 데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교육방법이다(박성희 외, 2013, 142).

(6) 의식화 교육방법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교육 방법을 “저축식 교육”과 “문제제기식”으로 분류한다. “저축식 교육” 방법은 전통적인 교육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으로, 이 방법은 인간이 예속되어 가는 길들임의 과정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프레이리는 비판한다. 그것에 반하여 그가 새롭게 제시하는 “문제제기식” 교육방법은 “의식화”를 목표로 한다. “의식화”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순들을 파악하고 현실의 억압적인 상황에 저항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학습 과정으로, “침묵의 문화” 속에 매몰된 의식을 “출현”시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 전략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방법 이다(윤응진, 2001, 223-224).

2) 감수성 훈련 교육방법

감수성 훈련(sensitive training)은 자신과 타인과의 만남에서 관계를 개선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여기에서의 나와 타인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된다. 또한 생각이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느끼는 기분을 솔직하게 주고받는 것이다. 따라서 감수성 훈련은 이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또한 감수성 훈련은 소집단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성 훈련이다, 가상적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감수성 훈련의 내용은 훈련집단인 T-집단(training group)과 실험집단 E집단(experiment group) 그리고 일반화 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종표, 이복희, 2007), ① T-집단(훈련집단)은 실험적 집단 분위기에서 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해 자기 인식과 타인 행동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집단훈련이다. 또한 T-집단은 인간성의 회복을 통하여 소외와 불안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감수성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learning by doing'으로서 실제로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의미이다. ② E-집단(실험집단)은 체험학습을 통한 인간관계에 관한 경험을 분석 요약하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E-집단에서는 10명 내외로 새로운 집단을 편성하여 역할극이나 집단토의 등의 방법을 통해 토론한다. ③ 일반화 시간은 T-집단과 E-집단의 소집단 훈련 외에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집단생활 시간을 일반화 시간(session for generalization)이라 한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체험학습을 통해 겪은 심리적인 충격과 독특한 경험을 일반화 시간을 거치면서 정리하고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김영옥 외, 2019, 249-251).

3) 하나님 인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성 교육 방법

김정준(2011)은 기독교 영성은 한 인간이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 그리고 가치를 덕으로써 하여 사회문화적 상황 안에서 삶을 일치시키며 구체화하는 삶의 총체적 양식이라고 하였다(김정준, 2011, 157-165). 이러한 영성교육 방법을 파커 팔머의 영성훈련 방법과 웨스터호프 III세의 영성 생활을 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파커 팔머의 영성훈련 방법

파커 팔머는 기독교 수도원의 영성훈련에 근거한 교수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Palmer, 2004, 42-43) 첫째, 문헌들에 대한 연구(the study of sacred texts)이다. 둘째, 기도와 관상의 훈련(the practice of prayer and contemplation)이다. 셋째, 영적 공동체의 공동생활(the gathered life of the community itself)이다(옥장흠, 2013, 357).

(2) 영성생활을 통한 삶을 사는 방법

웨스터호프 III세(1994)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현존 의식훈련, 영성 일기 작성, 영적인 친구들, 거룩한 독서, 훈련된 삶으로 제시하였다(Westerhoffe III, 2009, 151-165). 첫째, 하나님의 현존 의식훈련이다. 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의 현존의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자세를 가진다. ② 주의를 집중한다. 이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그리고 사랑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③ 굳센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연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반드시 체험하고자 말겠다고 다짐하고 대망하는 마음자세를 일컫는다. ④ 생명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향을 분명히 해준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깊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영성 일기 쓰기이다. 성서 말씀을 읽으면서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였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통찰력

을 얻게 되고, 성서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바를 깨닫는 순간 우리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은 기록물이다. 셋째, 영적인 친구이다. 영적인 친구는 우리가 영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생을 살도록 해주고, 우리가 추상적인 신학 토론을 피하게 해주고, 어느 기도방식이 옳으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이다. 성스러운 독서와 성서 말씀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수행이다. 성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서 말씀을 통해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만남의 경험을 검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다섯째, 훈련된 삶이다.

4)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방법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공유적 삶 접근 교육 방법, 주빌리 의식 교육, 메타포(metaphor)를 이용한 교육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옥장흙, 2019, 298-299).

(1) 공유적 삶 접근 교육 방법

공유적 삶이란 Thomas Groome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공유적 실천(shard praxis)이라고도 한다. 공유적 실천을 통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활력있는 기독교 신앙 형성에 목적을 두고 함께 대화에 참여함을 통해서 구성원들 자신의 신앙 행동(이야기와 비전)을 기독교 이야기(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비전(다시 오심의 약속)의 빛 아래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Westerhoff III, 1978, 93-122).

(2) 주빌리(Jubilee) 의식(Ritual) 교육 방법

주빌리 의식 교육은 레위기 25장,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16-20을 묵상하면서 시작된다. 이 예전의 과정은 선포로 시작해서 회개와 용서의 시간과 더불어 계속되며,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자유와 정의에 도움이 되는 일들로의 파송하면서 마친다(Harris, 2015, 204).

(3) 메타포(metaphor)를 이용한 교육 방법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는 “메타포(metaphor)”를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기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메타포를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설명할 때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개념에 대한 감각과 인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교육방법이다(James Fowler, 1996, 87-89; 임재선, 2003, 79. 재인용).

4.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기후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김국환(2014)은 『사회현상과 기독교교육』에서 기독교 시민교육의 방향을 한국 사회의 시대적 주요 성향을 과학기술 사회, 멀티미디어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시대적 성향에 의해 나타난 다문화현상, 평화공존, 생태환경,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선정하였고, 한국 기독교의 종교적 현상을 제자 시민직, 인격적 신앙형성, 한국교회 성장, 다음 세대 양육 등을 제안하였다(김국환, 2014, 9-14).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성서적 기반과 신학적 측면에서 공공성, 공익성 등을 강조하는 공공신학적 토대에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제자직과 시민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이론에 그치지 말고 기독교 교육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넷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종교, 인종, 성별 등 다원적 관점에서 인권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기독교 민주시민의 윤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 시민교육을 영역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V. 민주시민교육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적용방안

기후 위기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안을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본질과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모형을 토대로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마을 교

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으로 분류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실천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대안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정욱(2021)은 지구 생태위기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지구 기후변화, 기후변화 이외의 지구적인 환경 문제,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지속 가능하고 생태위기에 안전한 국토 가꾸기, 식량안보,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김정욱, 2021, 46). 첫째,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과 폭력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섬김의 통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통치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통치도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을 반영해야 하며, 폭력과 억압의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이 땅이 오염되고 그 안에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쁜 소식은 인간의 죄악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도록 실천하는 일이다. 셋째, 파괴되어 가는 이 땅을 바로잡아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물려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것이 인류가 생태위기를 벗어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유은주(2022)는 기후환경 및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교육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영성교육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유은주, 2022, 294).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환경단체의 세미나와 홍보 등을 통해서 기후환경 및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기 대안과 노력을 해왔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한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함부로 지배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할 당위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파괴한 생태환경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영성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가 앞장서서 기후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선구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성교육 모델들을 개발하여 기독교와 교회가 실천에 옮기는 일들이

필요하다.

2.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

기후 위기 시대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을 위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와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문시형(2015)은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는 교회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도덕적 공감능력의 회복이고, 둘째, 안전의 공공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 회복이라고 하였다. 도덕적 공감은 기독교 고유의 가치에 속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 무관심과 그들을 질타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의 공감 상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도덕적 공감을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문시형, 2015, 191). 다음으로 안전의 공공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위험한 사회와 사회 안전의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교회의 공공성의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다. 앞으로 교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인간적인 탐욕을 지양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직과 신뢰의 기독교적 실천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강조하고 탐욕의 절제를 가르치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문시형, 2015, 193-195). 최근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원규(2010)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이원규, 2010, 112). 첫째, 한국 교회의 양적팽창 주의(외향주의)이다. 둘째, 교파의 난립(교파분열)이다. 셋째, 지나친 개 교회 중심주의로 교회의 개인주의이다. 넷째,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다섯째, 목회자의 사리사욕 등이다. 또한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은 목회자의 교회세습,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 세속적인 맘몬주의 교회의 양적 팽창 주의 등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위해 소금과 빛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독교 윤리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교육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3.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기후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 인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인성은 생명이시고, 영이시며, 사랑이시며, 인격적인 존재로서, 속성을 지니

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그의 내재적 속성을 나타내신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능력,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타인을 잘 이해할 수 능력을 지닌 자로 이끌어 주는 교육이다(장화선 2014, 59). 이러한 인성교육의 방법을 장화선(2014), 강용원(2015), 김정희(2016)는 마태복음 5:3-11, 갈라디아서 5:22-23, 베드로후서 1:5-7을 기초로 하여 제시하였다(강용원 2015, 361; 김정희, 2016, 265-286; 장화선, 2014, 47-76).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법을 개인적인 차원, 타인과의 관계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은 한 개인의 인격과 신앙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완성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 차원에서 인성교육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인성이 이웃 사랑이다. 이러한 이웃 사랑을 기독교 공동체와 신앙인들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성교육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옥장흙, 2019, 295). 따라서 기독교 인성교육은 하나님의 본성을 내면화하여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 주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길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한다.

4.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

기후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 마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다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강영택, 2022, 45-46). 첫째, 교육을 학교교육에 한정시키면, 수업 시간에만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마을로 확장되면 마을에서 학생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마을이 학교가 될 때 가르치는 이는 학교 교사를 넘어 마을의 주민들이 된다. 오늘날 마을 주민 가운데는 학생들의 교과 지도나 비교과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다. 셋째, 마을은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을 검증하거나 실천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과 더욱 밀착되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김도일(2022)은 기독교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을 교회와 마을공동체가 마을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 보살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교육이라고 하였다(김도일, 2022, 8). 또한 고성휘(20

21)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회의 마을공동체 교육에서 공통된 가치와 방향을 함께 살아내기, 상호존중과 소통, 친밀성, 교회의 공공성과 영성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민주시민교육은 지역사회를 마을교육공동체로 형성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제자직을 더욱더 충실하고 깊이 있게 수행하고, 이와 동시에 세계를 향한 관계성과 소통의 능력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출산율이 저하됨으로 교인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농촌 교회는 교인의 수가 30여명 이하가 되는 교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개 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기독교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기후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 평화교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인, 이웃과 사회, 자연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구축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이윤희, 2016, 353). 기독교 평화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자신의 내면적 문제, 가족, 교회 혹은 학교,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제이다(박경순, 2014, 16). 기독교 평화교육은 성서적 가르침을 재조명함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평화’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헌신한 예수의 길에 참여해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윤응진, 2012, 28). 그러므로 기독교 평화교육은 전 지구적인 비평화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 역량(peace capability)을 강화하여 나 자신, 타인, 공동체 그리고 환경과의 평화적 관계들을 이루어 감에 있다(조미영, 2020, 393). 평화교육을 위해 가르침과 학습의 형태에 대하여 평화교육자들이 관심하여야 할 것은 교수학상의 계략들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가르침과 학습의 방식이 ‘평화’라는 목표와 일치하는지 재검토하는 일이다. 평화교육에서는 단순히 평화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활동적인 평화적 행동방식과 평화에 적대적인 구조들에 대한 저항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라는 학습 목표는 억압적인 수업방식을 통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 평화교육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평화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조미영(2020)은 평화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교육의 방향(조미영, 2020, 394-398)은, 첫째, 관계적 역량으로 평화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 둘째, 평등적 역량으로 비폭력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교육, 셋째, 개방적 역

량으로 평화상상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대인으로 평화교육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성서에서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여 살림과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교육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고, 평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 기독교와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하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

기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5%, 특히 20세 이하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5명 중 1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옥장흠, 2019, 279). 이러한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삶의 공존을 모색하도록 돕는 신앙 교육이 기독교 다문화 교육이다(옥장흠, 2019, 287). 이러한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교육의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편견과 혐오를 배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신분이나 상태를 기준으로 불리한 신분이나 상태에 처해있는 낮은 타자(인간)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와 배제는 기독교인의 가치와 삶의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형성해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왜곡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웃과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이 요청된다(옥장흠, 2019, 301). 둘째, 다문화인들을 환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환대는 위기에 빠진 이 세상에 치유와 정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행동에 연대하는 것이다(Russell, 2012, 47-48). 셋째, 기독교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 다문화 감수성 교육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에 유입된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은 문화적 고정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신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옥장흠, 2019, 303). 따라서 기독교 다문화교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환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사회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감수성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7.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

기후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의 읽고 쓰는 개인적 능력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위한 능력이다. 사회적 소통 능력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김경희 외, 2018, 67). 디지털 미디어는 시·공간으로부터 탈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연령층의 참여적 학습, 긴밀한 상호소통 등을 가능케 하게 해준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공유와 확산으로 보편화되고, 소수자들만의 지배 및 사상, 권력과 지식의 영향력이 일반 시민계층으로 확대되어 원활한 상호 의사소통으로 삶의 다양성이 대중적 생활양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김국환, 2012, 143). 기독교 디지털 미디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교육을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아미, 2019, 167-168). 첫째,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 디지털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로서 디지털의 시민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시민성을 논의와 연계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쌍방향 학습을 적절히 활용하여 디지털 접근 및 기술 역량을 디지털 시민성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성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성교육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이 최근에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으로 교육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으나, 반대로 폐해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코로나 19이후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였지만 이로 인해 디지털 문화의 격차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 교육뿐만 아니라 리터러시 교육도 기독교와 교회가 실시하여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변모될 것을 기대한다.

V. 나가는 말

기후 위기가 지구 생태계와 생명체를 위협하고, 지구와 인류를 향한 경고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기독교와 교회가 탐욕을 극복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첫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민주시민교육,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모형을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안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줄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도덕적 공감능력과 공공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 마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기독교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공존하는 삶을 모색하도록 돕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 일곱째,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의 읽고 쓰는 개인적 능력을 궁극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기후 위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현재의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택(2022),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살림터.
- [Kang, Y. T. (2022), *For sustainable villages, education, and communities* Seoul: Salimteo.]
- 강용원(2015). 기독교 인성 교육의 성격적 기초. **기독교교육정보** 47, 361-398.
- [Kang, Y. W. (2015), Biblical Foundations of the Character Education,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361-398.]
- 고성휘(2021), 교회의 마을목회 전환과 마을공동체 교육에 있어서의 활동유형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66, 189-205.
- [Ko, S. H. (2021). A Study on the Activity Types in Church's Shift into Local Ministry and Local Commun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6. 189-205.]
- 김국환(2012), 멀티미디어 환경과 기독교교육의 대처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 143-172.
- [Kim, K. H. (2012). A Study on Multimedia Environment and the Countermeasures of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0, 143-172.]
- 김국환(2014). **사회현상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교.
- [Kim, K. H.(2014). *Social Issues and Christian Edcation*, Seoul: Kidok Hankyo.]
- 김경희, 이숙정, 김광재(2018),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서울: 한울.
- [Kim, K. H., Lee, S. J., Kim K. J. (2018). *Digital Media Literacy*, Seoul: hanwool.]
- 김도일(2022), 기독교의 공공성과 마을목회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종교교육학연구** 70, 167-183.
- [Kim, D. I. (2022). Public Nature of Christianity and Implic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in Maeul Ministr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0.167-183.]
- 김아미(2019), 디지털 시민성 개념 및 교육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9-13, 경기도교육연구원.
- [Kim, A. M.(2019). Research on digital citizenship concept and education plan, *policy research* 2019-13, Gyeonggi Provinci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김영호(2022), 루소의 교육철학과 기독교 공공교육론, **기독교교육논총** 71, 97-120.
- [Kim, Y. H.(2022). Rousseau's Philosophy of Education and Christian Public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1, 97-120.]
- 김난예(2011), 기독교학생들의 세계시민 의식과 교회 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27, 383-410.
- [Kim, N. Y.(2011), A Study on the World Citizenship of Christian Studen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7. 383-410.]
- 김영옥 · 최라영 · 조미경(2019), **평생교육방법론**, 서울: 학지사.
- [Kim, Y. O., Cho, L. K., Cho, M. K.(2019). *Methodology of Lifelong Education*, Seoul: Hakjisa.]
- 김정옥(2021). 지구생태위기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통합연구** 23(1), 7-48.
- [Kim, J. W.(2021). Global Ecological Crisis and the Role of Church for Creation Integrity, *Joins :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23(1). 7-48.]
- 김정준(2011), “기독교영성 교육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27, 157-165.
- [Kim, J. J.(2011). A Study on Research Methodology in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7. 157-165.]
- 김정희(2016).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 인성 및 기독교 인성 교육에 대한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46, 265-286.
- [Kim, J. H.(2016), Understanding of Christian Character and Cultivation of Character in Education at Christian School,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6. 265-286.]

- 김종표·이복희.(2007). 평생교육방법론: 서울: 양서원.
- [Kim, J. P., Lee, B. H.(2007). *Educational Methods of Lifelong Learning*, Seoul: Yangseowon.]
- 마음사회문화연구원 · 기독교환경교육센터(2022),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서울: 새물결플러스.
- [Mind Society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Christian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Challenge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and the Church's Response*, Seoul: Holywaveplus.]
- 문시형(2015), '위험사회'의 공공신학적 성찰과 한국교회의 과제, **장신논단** 47(4), 177-199.
- [Moon, S. Y.(2015). Risk Society and Church in Korea : A Public Theological Approach,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7(4), 177-199.]
- 박경순(2014), 한국의 기독교 평화교육의 연구 경향과 미래적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0. 13-46.
- [Park, K. S.(2014). The Research Trends of Christian Peace Education in Korea and the Future Task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0. 13-46.]
- 박성희 외(2013), **평생교육방법론**, 서울: 학지사.
- [Park, S. H., Song, Y.S., Na, H. J., Hwang, C. S., Moon, J. S., Park, M. S.(2013). *Educational Methods of Lifelong Learning*, Seoul: Hakjisa.]
- 백은미(2019), 기독교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신학적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9. 93-123.
- [Paik, E. M. (2019), Theological Foundation for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93-123.]
- 백은미 (2021),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독교 시민교육의 과제, **신학과 실천** 76. 487-516.
- [Paik, E. M. (2021),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ng Generation, *Theology and Praxis* 76, 487-516.]
- 배한동 (2006), **민주시민교육론**,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Bae, H. D.(2006).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 변영계 · 김영환 · 손미(2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Byun, Y. G., Kim, Y. H., Son, M.(2007). *Educa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Technology*. Seoul: Hakjisa.]
- 신익상(2019),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신학, **기후 위기, 한국교회에 묻는다**, 서울: 동연.
- [Shin, I. S.(2019). *Ecological theology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climate crisis, and the Korean church*, Seoul: Dongyeon.]
- 심성보 (2014), **민주시민교육**, 서울: 살림터.
- [Shim, S. B.(2014),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eoul: Salimteo.]
- 육강흠(2011), **통전적 기독교교육에 대한 연구: 탈무드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박사논문.
- Ok, J. H.(2011). *A study on the holistic Christian education : according to the faith education in the Talmud*, Sungkongho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육강흠(2019),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 **神學思想** 185, 279-313.
- [Ok, J. H.(2019). A Study on Directions for Christian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85, 279-313.]
- 육강흠(2013), 통전적 영성을 위한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6. 343-367.
- [Ok, J. H.(2019). A Study on Teaching Method for Holistic Spiritu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343-367.]
- 유명철 (2010). **민주시민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 [Yoo, M. C.(2010),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Paju: KYOYOOKBOOK.]
- 유은주(2022),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72. 293-316.
- [Yoo, E. J.(2022), Christia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2. 293-316.]

- 윤응진(2001), **기독교 평화교육론**,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 [Yoon, E. J.(2001), *Christian Peace Education*, Osan: Hanshin University Press.]
- 윤응진(2012), 기독교 통일 교육은 평화교육 이어야 한다, **기독교교육논총** 29, 25-56.
- [Yoon, E. J.(2001), Richtung und Aufgaben der Christlichen Friedenserziehung für die Vereinigung Korea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9, 25-56.]
- 윤형철(2021), 기후위기 시대와 그리스도인의 삼중적 생태 전환, **성경과 신학** 99, 91-119.
- [Yoon, H. C.(2021), The Threefold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Christian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Bible and Theology* 99, 91-119.]
- 이은경(2019), 기후 위기 시대 기독교 시민교육, **기후 위기, 한국교회에 묻는다**, 서울: 동연.
- [Lee, Y. K.(2019),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Ecological theology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climate crisis, and the Korean church*, Seoul: Dongyeon.]
- 이은성(2019), 교회 청소년 신앙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64, 227-251.
- [Lee, E. S. (2019),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for Youth In the Church *Theology and Praxis* 64, 227-251.]
- 이원규(2010),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 [Lee, W. G(2010), *The Crisis and Hope of the Korean Church*, Seoul: Kmc.]
- 이윤희(2016), 현대 기독교 평화교육의 동향과 미래적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48, 349-382.
- [Lee, Y. H.(2016), Trends in Modern Christian Peace Education and Future Prospec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8, 349-382.]
- 임재선(2003), **성인 여성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관계적 교수-학습모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Im, J. S.(2003), *A Study on the Relational Teaching-Learning Model for Christian Education of Adult Wome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장신근 (2009), 교회의 민주시민교육: 공교회와 공적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논총** 21, 109-152.
- [Jang, S. G. (2009),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 the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Faith and Public Church,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1, 109-152.]
- 장은주, 조철민, 이다현, 김민철, 이필구, 광형모, 권복희, 로리주희, 배경내, 조정현, 장미정, (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시민과 세계** 34, 99-134.
- [Jang E. J., Cho C. M., Lee D. H., Kim M. C., Lee F. G., Kwak H. M., Kwon B. H., Lori J. H., Bae G. L., Cho J. H., Jang M. J. (2019), Civic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direction of social consensus and the task for institutionalization, *Journal of Citizen & World*, 34, 99-134.]
- 장화선(2014), 개혁주의 기독교교육 관점에서의 인성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0, 47-76.
- [Chang, H. S.(2014), Character Education in a View of Reformed Christian Educatio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0, 47-76.]
- 전성연 · 최병연 · 이흔정 · 고영남 · 이영미(2007), **협동학습 모형 탐색**, 서울: 학지사.
- [Jeon, S. Y., Choi, B. H., Go, Y. N., Lee, Y. M.(2007), Exploring the cooperative learning model, Seoul: Hakjisa.]
- 조규락 · 김선연(20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Cho, G. L., Kim, S. Y.(2006), Educational method and educational technology, Seoul: Hakjisa.]
- 조미영(2020), 평화역량을 강화하는 기독교 평화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377-406.
- [Cho, M. Y.(2020), Christian Peace Education to strengthen Peace Capabilitie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77-406.]
- Boys, Mary C.(1999),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출판 1981.
- [Boys, Mary C.(1999),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Trans. by Kim, D.

- I.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Carr, W. & Hartnett, A. (1996). *Education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The Politics of Education Idea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Harris, Maria(2015). 김은주 옮김, **주빌리를 선포하라: 21세기를 위한 영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저 출판 1996.
- [Harris, Maria(2015), *Proclaim Jubilee: A Spiritualit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rans. by Kim, E. J., Seoul: CLC(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Olssen, M., Codd, J., & O,neill, A. M.(2015). 김용 역,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시민성·민주주의**. 서울: 학이시습.
- [Olssen, M., Codd, J., & O,neill, A. M.(2015). *Education Policy: Globalization, Citizenship and Democracy*, Trans. by Kim, Y., Seoul: hagsiseub(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Palmer, Parker(2014). 이종태 옮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원저 출판 1993.
- [Palmer, Parker(2014),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Trans. by Lee, J. T. Seoul: IVP.(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Fowler, James(1996). 박봉수 역,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원저 출판 1991).
- [Fowler, James(1996). *Weaving the New Creation: Stages of Faith and the Public Church*, Korean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Russell, Leetty M.(2012). 여금현 옮김.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원저 출판 2009.
- [Russell, Leetty M.(2012).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Trans. by Yeo, K. H.,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Original work published 2009).]
- Westerhoff III, J. H.(1978) 편. 김재은 옮김, **기독교교육논총**,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Westerhoff III, J. H.(1978) Editor,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Kim, J. E., Korean Christian Publishing House.]
- Westerhoff III, J. H.(2009), 이금만 옮김. **영성생활**. 경기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9. 원저 출판 1994.
- [Westerhoff III, J. H.(2009). *The Spiritual Life: The Foundation for Preaching and Teaching*. Osan: Hanshi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4).]
- Wortham, S,(2022). *Education for Democratic Dispositions: Developing Whole People through Historical Narrativ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2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자료집.
- [Wortham, S,(2022). *Education for Democratic Dispositions: Developing Whole People through Historical Narrative*. Democratization Movement Memorial Project Associ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ternational Forum Materials Book.]